

전남도 영산강·섬진강 정비 마스터플랜

수질 개선·친환경 관광자원 확보 중점

(영산강)

(섬진강)

전남도가 영산강과 섬진강 살리기 사업을 위해 총 66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총 사업비 규모 만 12조5천248억원에 이른다. 이 중 영산강에 9조1천212억원이, 섬진강에 3조4천36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영산강 생태하천 정비사업'으로 첫 삽을 뜬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수질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고, 섬진강은 재해 예방과 함께 친환경적인 관광자원 확보에 중점을 뒀다.

영산·영암호 배수갑문·연락수로 확장 수상 호텔·생태 공원 관광 인프라 확충

◇영산강 수질개선에 '초점' = '영산강 살리기'의 주요 목표는 수질 개선이다. 현재 5급수까지 떨어진 수질을 2급수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수질 개선 주요 사업 계획으로는 1조1천440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2급수 이상 깨끗한 영산강 조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이미 오염된 영산강의 근본적인 수질 회복을 위한 오염원 사전 차단을 위한 것이다. 나주·담양·화순·영암 등 영산강 유역 인근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하수관거 정비 등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대대적인 수질개선 사업이다.

또한, 3천239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영산호 및 영암호 배수갑문도 확장될 계획이다.

영산강 하류의 퇴적에 따른 하구둑 배수불량을 막기 위해 현재 240m와 80m의 영산호·영암호 배수갑문을 480m와 410m로 확장, 원활한 물길 소통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홍수 조절도 가능하다. 이밖에 영산호와 영암호의 연락수로(水路) 폭도 기존 15m에서 140m로 확장하는 사업과 영산강 지류인 4개 하천 환경정비 사업, 영산강 유역 숲 가꾸기 사업 등도 포함돼 있다.

◇영산강 주변 관광 인프라 확충 = 영산강의 수질이 대폭 개선되는 것과

함께 각종 관광 인프라도 영산강 주변에 마련된다. 우선 영산강 뱃길 복원을 위한 영산호 통선 문이 기존 폭 6m에서 60m로 확장돼 중·소형 선박이 드나들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나주 영산 포구를 재개발하고, 나주 구진포·함평 사포·무안 몽탄 등에도 옛 나무터울 복원해 황토 돛배를 띄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영산호 나불도 앞 수면에 민자유지를 통한 수상 호텔이 건립되고 나주 공산면 백사리 일대에는 수상레포츠 타운과 연못·승마장을 갖춘 생태테마공원이, 목포 하구둑에는 카누·조정 경기장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섬진강 '친환경 생태·휴식공간'으로 = 섬진강 정비 및 개발 사업계획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청정한 수질 및 자연생태계 보전을 우선하고, 천혜의 관광자원인 지리산과 남해안을 연계한 '친환경적인 관광자원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례군 토지면에 생태 한방요양원을 조성하고, 곡성군 오곡면에 한옥형 탄소 제로 녹색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폭우로 인한 지리산 관광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피아골 휴양단지 사업과 광안과 순천, 구례, 곡성 등 섬진강 유역에 12종의 경관

림을 조성하는 대대적인 섬진강 유역 숲 가꾸기 사업은 대표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 중 하나다.

이밖에 ▲섬진강변 50km 꽃길 조성사업 ▲망덕지구 해양복합 테마랜드 ▲수중어류 관람대 ▲섬진강변 도로(95.6km·자전거 도로 포함) 조성 ▲곡성지구 수변공원 조성 사업 등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섬진강 살리기 사업에는 보성강 개발 사업도 총 6개 사업이 포함돼 있다. 보성강이 섬진강으로 합류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제방보강 사업과 천변 저류지 조성사업 등을 함께 펼쳐겠다는 계획이다.

◇사업계획 얼마나 반영될까? = 전남도는 영산강·섬진강 살리기 사업계획을 확정해 지난 6일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기획단'에 제출했다. 기획단은 이 사업계획을 분야별로 각 해당부처에 통보를 했고, 현재 각 해당 부처에서 사업 적정성 여부 등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달 말까지 사업 심사가 마무리되면 기획단은 5월 말까지 이 같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게 되고, 이때 세부 사업들이 확정되게 된다.

전남도는 이번에 확정된 총 66개 사업이 모두 정부 사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일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전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꺼져가는 4대강 정비사업의 불씨를 박준 영 전남도지사가 살렸다"고 언급했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박 지사의 노력으로 본격 추진하게 된만큼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도 전체 사업이 반영돼야 한다는 논리로 정부를 설득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환경 오염으로 신음하고 있는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영산강 생태하천 정비사업'이 본격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5월 영산강 줄기인 나주시 동강면 사포나무에서 열린 황포돛배 출항 행사. (광주일보 자료사진)

“돼지고기 관세 철폐 시기 美보다 장기로”

이혜민 교섭대표 “한·유럽 FTA 협상 쌀은 제외”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18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생동 돼지고기의 관세철폐 시기는 한·미 FTA 보다 장기로 가기 위한 협의의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EU FTA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상대국이 어디든 농산물은 민감하게 다루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쌀은 협상에서 제외하고 그의 우리에게 민감한 품목은 장기 관세철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민감성을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잔여 핵심쟁점 중 하나인 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 이 대표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이슈”라며 “관

세환급을 폐지하면 관세철폐 효과를 상당히 훼손시킬 수 있고 국제 무역기구(WTO)에서도 관세환급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한·EU FTA에서 이를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그는 “한·미 FTA 방식을 따를 계획”이라면서 “FTA는 경제통합 협정이지만 최근 개성공단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 안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분야와 관련해 이 대표는 “한·미 FTA는 네거티브 방식을 택했지만 한·EU FTA는 개방하는 분야를 적시하는 포지티브를 택해 접근방식이 다르다”고 전제 한 뒤 “기본적으로는 한·미 FTA 수준으로 개방되 제한적으로 좀

더 나가는 '코스 플러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3~24일 서울에서 열리는 8차 협상에서 협상단 간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를 기초로 다음달 통상장관회담에서 승인하거나 다시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 “정치적 성격의 사안은 통상장관회담에서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 타결이 선언되면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거쳐 가시성이 이뤄지는데 빠르면 5월 말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대표는 말했다.

이후 정식서명은 EU 이사회의 장국 각료가 전체 회원국을 대표해 실시하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이 대표는 전망했다.

/연합뉴스

“육사·해사·공사 통합 장기과제 검토”

국방부 “합동군체제 이뤄지지 않는 한 어려울 듯”

국방부는 18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사관학교 통합을 현재 검토 중”이라며 “군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제도와 함께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층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20여 년 전부터 합동성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통합해보자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중단했는데 최근 아이디어 차원에서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합동군체제가 이뤄지지 않는 한 통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각 군 사관학교마다 특성이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

고 무조건 통합하자는 것은 현실적인 방안이 못된다”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관학교 통합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기됐으나 각 군의 이해가 엇갈려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방위대학에서 육·해·공군 장교를 통합 배출하고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따로 두고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The World Loves Peace'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featuring a testimonial from a former North Korean official and a book cover.